

## 4/18(월) 에스라 묵상 16

### 에스라 9: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에스라를 비롯한 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에스라는 고국에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 가증한 일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먼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이 행한 일을 뜻합니다(스 8:33-36).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온갖 금은과 예물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일을 말합니다. 그 후 일정기간이 흐르게 되고 일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방백들이 말한 가증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보고였습니다(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타민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타인종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빠르게 종교와 사상적으로 이방화(세속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가증한 일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방백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사실 방백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심지어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며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에스라의 슬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속옷과 겹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에스라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심히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동’은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에스라가 이토록 주저앉아 거룩한 분노를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유사한 죄로 인해 국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파괴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짓기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에게 있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낯이 나가 있는 에스라 주변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오늘 묵상 한대로 에스라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가증한 죄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대신 슬퍼하며 아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회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방심하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회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현재 북한에는 2013 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2014 년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모두 무기 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으며 이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가 억류되어 있다. 북한이 하루속히 이들을 석방하며 또한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석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도록 기도 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정요엘(미얀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